

현재의 울진군(蔚珍郡)은 1914년 기존 울진군과 평해군(平海郡)을 통합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울진과 평해의 연혁은 각각 『삼국사기』 지리지, 고려사 『지리지』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하면 신라 울진군의 본명은 (고구려) 우진야(于珍也)인데 경덕왕 때 울진으로 고쳤으며, 해곡현(海曲縣, 본명 파차현(波且縣), 편찬 당시 위치 미상)을 거느리고(領) 있었다.<sup>44</sup>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에는 ‘우추실지하서아군행사대등(于抽悉西阿郡使大等)’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실지와 하서아가 각각 삼척과 강릉이라는 것이 분명하므로 우추는 우진야, 곧 울진의 다른 표기로 볼 수 있다. 또 『삼국사기』 석우로전(昔于老傳)에는 ‘우유촌(于柚村)’이 나오는데 이것 역시 우진야의 이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삼국지』 동이전에 나오는 진한(辰韓) 우유국(優由國) 혹은 우중국(優中國)<sup>45</sup>은 역시 울진일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울진의 역사는 삼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평해군은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나오지 않고 『고려사』 지리지에 본래 (고구려) 근을어(斤乙於)로 고려 초에 평해로 고쳤다고 되어 있다.<sup>46</sup> 근을어라는 지명은 좀 더 이른 시기부터 있었을 수 있지만 평해가 군현(郡縣)으로 성립한 것은 대체로 고려 이후라고 할 수 있으며, 대체로 해곡현을 포함한 기존 울진군의 영역 안에서 분립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대 울진의 역사를 서술하기 전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지리지에서 울진이나 평해를 ‘본래 고구려’ 군현이라고 한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삼국사기』 지리지는 고려 인종 때 김부식 등이 편찬한 것으로 원자료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sup>47</sup> 여기에서는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일률적으로 상주(尙州), 양주(良州), 강주(康州) 소속 군현은 ‘본래 신라’, 한주(漢州), 삭주(朔州), 명주(溟州) 소속 군현은 ‘본래 고구려’, 웅주(熊州), 전주(全州), 무주(武州) 소속 군현은 ‘본래 백제’ 군현이라고 적고 있다.

이것은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통합하여[一統三韓] 그것을 9주(九州)로 편성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일 뿐, 9주의 형성 과정과 각 군현의 연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울진의 경우에도 고구려에 의해 잠시 점유된 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래 고구려 군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삼국사기』 지리지를 통해 경덕왕 때 우진야를 울진으로 고쳤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그 외의 역사는 다양한 사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재구성해야 한다.

44. 『삼국사기』권35, 잡지4 지리2 신라 명주 울진군

蔚珍郡, 本高句麗于珍也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一

海曲[一作西縣], 本高句麗波且縣, 景德王改名, 今未詳

45. 판본에 따라 ‘優由國’ 또는 ‘優中國’이라고 되어 있다. 紹興本, 蜀刻小字本, 南監本은 ‘由’, 紹熙本, 汲古閣本, 武英殿本, 百納本은 ‘中’(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편, 2018, 『中國正史 東夷傳 校勘』, 동북아역사재단, 41쪽)

46. 『고려사』권57, 지11 지리2 경상도 예주 평해군

平海郡, 本高句麗斤乙於, 高麗初, 改今名. 顯宗朝, 來屬. 明宗二年, 置監務. 忠烈王時, 縣人僉議評理黃瑞, 隨駕入元, 翊戴回還, 以功陞知郡事. 別號箕城. 有溫泉

47. 윤경진, 2012, 『三國史記』地理志의 기준 시점과 연혁 오류 『韓國史研究』156, 한국사연구회, 2쪽

고대 부분에서는 현재의 울진군과 거의 같은 범위라고 생각되는 신라 울진군의 역사를 가능한 정확한 자료에 입각해서 논의,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sup>48</sup>

## 제1절 삼한 시기(~3세기)

『삼국지』동이전에 의하면, 3세기 중엽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는 마한(馬韓), 진한(辰韓), 변한(弁韓)이 있었고, 그중 영남 지역의 진한, 변한에는 각각 12개씩 24개의 ‘국(國)’이 있었는데 각각의 명칭은 아래와 같다.

<표 16> 『삼국지』동이전의 진·변한 24국

소속	명칭(한글)	명칭(한자)	현재 위치	비고
진한	이저국	已祗國	경북 청도	
	불사국	不斯國	경남 창녕	
	근기국	勤耆國		
	난미리미동국	難彌離彌凍國		
	염해국	冉奚國		
	군미국	軍彌國		
	여담국	如湛國		
	호로국	戶路國		
	주선국	州鮮國		
	마연국	馬延國		
	사로국	斯盧國	경북 경주	
	우유(중)국	優由(中)國	경북 울진	
변한	미리미동국	彌離彌凍國	경남 밀양	
	접도국	接塗國		
	고자미동국	古資彌凍國	경남 고성	
	고순시국	古淳是國		

48. 기존에 고대 울진의 역사를 정리한 논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盧重國, 1999, 「古代 蔚珍의 歷史 概觀」『韓國古代社會와 蔚珍地方』, 韓國古代史學會; 노중국, 2001, 「제3장 고대사회의 전개와 울진지역」, 「제4장 울진지역의 고대교통로와 신앙」『울진군지』상; 노중국, 2016, 「지정학적 위치로 본 고대의 울진」『울진군의 역사와 문화』, 삼한문화재연구원·성림문화재연구원; 심현웅, 2016, 「고고자료와 문헌기록으로 본 울진의 연혁」, 울진군의 역사와 문화, 삼한문화재연구원·성림문화재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대」, 디지털울진문화대전, (<http://uljin.grandculture.net>), 2020년 6월 30일

소속	명칭(한글)	명칭(한자)	현재 위치	비고
변한	반로국	半路國	경북 고령	
	낙노국	樂奴國		
	미오야마국	彌烏邪馬國	경남 창원	
	감로국	甘路國	경북 김천 개령	
	구야국	狗邪國	경남 김해	
	주조마국	走漕馬國	경남 함양	
	안야국	安邪國	경남 함안	
	독로국	瀆盧國	부산 동래	

여기에서 진한 우유국 또는 우중국을 울진에 비정할 수 있다. 사로국 바로 다음에 나와 인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울진의 옛 이름인 우진야, 우추, 우유와 음이 유사하기 때문이다.<sup>49</sup> 이처럼 삼한 시기에는 동해안을 따라 사로국, 우유(중)국이 있어 울진 지역까지 진한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그것과 상충하는 자료도 존재하는데, 포항 북구 신광면 흥곡리에서 ‘진술선예백장(晉率善穢伯長)’이란 6자가 아래로 2자씩 3행으로 음각된 청동 인장이 출토되었다. 이 인장은 3세기 후반 중국의 진(晉)이 주변 민족들을 회유할 목적으로 만들어 그 유력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예(濊)의 분포 범위는 단단대령(單單大嶺)의 동쪽과 서쪽으로 알려져 있는데, 동해안을 따라 포항 지역까지도 한(韓)이 아닌 예에 속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유물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현재의 경북 동해안 지역이 예에 속했다고 판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사로국 다음의 우유(중)국은 역시 울진에 비정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한으로 보는 적절할 것이다.

진한과 변한의 ‘국(國)’은 대국(大國)이 4~5천 가(家), 소국(小國)은 6~7백 가였다고 하며, 각국은 ‘국읍(國邑)’을 중심으로 몇 개의 ‘읍락(邑落)’이 결합한 형태였다고 추정된다. 여기에서 읍락은 중심 취락(마을)인 읍(邑)과 주변의 작은 취락인 락(落)을 같이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울진 지역에서는 아직 고고학 자료를 통해 그러한 정치체의 면모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한국 고고학계에서는 이 시기를 원삼국시대라고 하며 이 시기 영남 지역의 무덤은 목관묘, 목곽묘로 알려져 있다. 울진 지역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묘군이 조사된 사례가 많지 않으며, 그중에서도 1~3세기의 고분군은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그렇지만 이 시기의

49. 이 밖에 이를 밀성군의 속현인 오구산현(烏丘山縣)[본명 오야산현(烏也山縣), 현 경북 청도군 청도읍 유흥리], 유린군(有鄰郡)[본명 우시군(于尸郡), 현 경북 영덕군 영해] 등에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

무덤은 봉분이 현저하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앞으로 ‘국’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고분군의 발견을 기대해 본다.

## 제2절 삼국 시기(4~7세기)

삼한 시기 울진의 정치체, 즉 우유(중)국은 사로국과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로국의 발전 과정에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결국 그 세력권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사료는 아니지만 『삼국사기』의 다음과 같은 기사가 참고된다.

사료 1-1. (파사이사금) 23년(102) 가을 8월에 음즙벌국(音汁伐國)과 실직곡국(悉直谷國)이 영토를 놓고 다투다가 왕에게 와서 결정해 줄 것을 청하였다. 왕이 어렵게 여기고는, “금관국(金官國)의 수로왕(首露王)이 나이가 많아 지식이 많다.”라고 하며 불러서 물어보았다. 수로왕이 의견을 내어 다툼이 된 땅을 음즙벌국에 속하게 하였다. 이에 왕이 육부(六部)에 명하여 수로왕을 만나 잔치를 베풀게 하였다. 다섯 부는 모두 이찬(伊飡)이 잔치의 주관자가 되었으나, 오직 한기부(漢祇部)만이 지위가 낮은 자로서 주관자로 삼았다. 수로가 분노하여 자신의 노복(奴僕)인 탐하리(耽下里)에게 명하여 한기부의 주관자[主] 보제(保齊)를 죽이게 하고는 돌아가 버렸다. 노복 탐하리는 음즙벌국의 왕 타추간(陟鄒干)의 집에 도망가서 의지하였다. 왕이 사람을 시켜 그 노복을 붙잡게 하였는데, 타추가 보내주지 않았다. 왕이 분노하여 군사를 일으켜 음즙벌국을 정벌하니, 그 왕이 자신의 무리와 함께 스스로 항복하였다. 실직과 압독(押督) 두 나라 왕도 와서 항복하였다.<sup>50</sup>

사료 1-2. (파사이사금 25) 가을 7월에 실직(悉直)이 반란을 일으키니, 병사를 출동시켜 토벌하여 평정하고, 남은 무리들을 남쪽 변경으로 옮기게 했다.<sup>51</sup>

이 기사에는 울진의 옛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안강에 합속되었다고 하는 음즙벌국

50. 『삼국사기』권1, 신라본기1 파사이사금 23년

二十三年, 秋八月, 音汁伐國與悉直谷國爭疆, 詣王請決. 王難之謂, “金官國首露王, 年老多智識” 召問之. 首露立議, 以所爭之地, 屬音汁伐國. 於是, 王命六部, 會饗首露王. 五部皆以伊飡爲主, 唯漢祇部以位卑者主之. 首露怒, 命奴耽下里, 殺漢祇部主保齊而歸. 奴逃依音汁伐主陟鄒干家. 王使人索其奴, 陟鄒不送. 王怒, 以兵伐音汁伐國, 其主與衆自降. 悉直押督二國王來降

51. 『삼국사기』권1, 신라본기1 파사이사금 25년

秋七月, 悉直叛, 發兵討平之, 徙其餘衆於南鄙